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93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5.21~2026.05.27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9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3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지지, 미래, 청년, 책임, 도의원
경제·관광	항공(좌석), 수출, 관광객, 생산, 인구
지역·사회	교사, 습지, 도로, 대응, 예상

※ 분석 기간 : 26.05.21.~26.05.27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위성곤 우세 - 서귀포 국회의원 김성범 지지 강세 - 교육감 선거 고익숙·김광수 초접전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곤 후보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 - 문성유 후보의 신 5대 산업 대혁신 - 서귀포 농수산업의 미래 생존 전략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정주 개선 - 청년 삶을 바꾸는 실질적 민생 정책 - 청년 창업 및 문화 거점 공간 활성화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칭다오 항로 개설 관련 책임 공방 - 해양치유센터 무산 위기 책임 공방 - 공약 말 바꾸기 및 입법 책임 비판
	도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맞춤형 생활밀착 공약 대결 - 비례대표 이중당적 논란 자격 유효 - 소수 정당 도의회 진출과 도정 견제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항공(좌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기점 국내선 심각한 좌석난 발생 - 관광업계, 항공 좌석난 해소 서명운동 - 좌석 부족으로 인한 경제 위축 우려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제주 수출액 사상 첫 1억 달러 돌파 - 반도체 및 항공기 부품 수출 증가 주도 -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수출 동반 성장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님오신날 연휴 17만명 이상 입도 전망 - 국제선 및 크루즈 확대로 해외 관광 회복 - 친환경 관광프로그램 그린로드 확산 지원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 농가 보급 확대 - 감귤 저탄소 생산혁신 지원 사업 참여 저조 - 제주 한우, 고급육 생산 전국 1위 달성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제주 청년층 인구 역대 최대 순유출 - 인구 탈제주 핵심 원인은 직업과 주택 문제 - 1분기 출생아 증가에도 여전한 인구 자연감소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 현승준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 도내 초등학교 폭행 피해와 교권 추락 - 교육감 후보들의 교권 보호 핵심 공약
	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습지 보전 예산 전무 및 단순 정비 - 습지실천계획 불이행 및 편의주의 지적 - 내륙 및 연안 통합 습지 관리 체계 촉구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영로 차고지 인근 화물차 상습 불법 주정차 -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가로수 무단 훼손 논란 - 강정마을 진입도로 공사 생태계 무단 파괴 논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님오신날 연휴 소방당국 특별경계 비상 대응 -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촉구 - 학생 대상 강력범죄 예방 자치경찰 야간 대응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집중호우 및 강풍 동반 악천후 예상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조기 급증 및 예산 소진 예상 - 제6호 태풍 장미 북상 및 간접 영향권 편입 예상

정치·행정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연령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18~29세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30대부터 60대까지의 폭넓은 연령층에서 모두 과반의 굳건한 지지를 얻어냄. 또한 정치 성향별 분석에서도 진보층의 86%와 중도층의 64%가 위성곤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시 갑·을 지역과 서귀포시를 포함한 제주도 내 모든 권역에서 60% 이상의 고른 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 판세의 주도권을 확고히 다지고 있음. - 서귀포 국회의원 김성범 지지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5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9%에 그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따돌림. 선거의 향방을 가를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김성범 후보가 64%를 획득하여 22%를 기록한 고기철 후보를 크게 앞질렀으며,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 비율 역시 83%로 매우 높게 나타나 지지층의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줌. · 연령별 표심 구도를 분석한 결과, 김성범 후보는 30대부터 60대까지의 중장년층에서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확고한 우위를 점함. 반면 경쟁자인 고기철 후보는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52%의 지지를 얻고 보수층 유권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61%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데 그침. 두 후보 모두 42%에 달하는 18~29세 청년 부동층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하고 흡수하느냐가 남은 선거 기간의 최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교육감 선거 고의숙·김광수 초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김광수 후보가 37%, 고의숙 후보가 3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초접전 양상을 보임. 특정 후보가 절대 우위를 점한 도지사 선거와 달리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1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양측 지지자들 간의 신경전과 득표 경쟁이 남은 선거 기간 내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두 유력 후보의 지지 성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광수 후보는 10대 및 20대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보수층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한 반면, 고의숙 후보는 40대와 50대 중장년층 및 진보층에서 강세를 나타냄. 전체 유권자 중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부동층의 비율이 20%에 육박하는 만큼, 선거 막판까지 이들 부동층의 표심을 사로잡고 유동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전략이 최종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요인임.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곤 후보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과거 관광과 건설업에 편중되었던 제주의 낙후된 경제 구조를 지식과 기술 중심의 미래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무려 10기가와트(GW)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전진기지로 완벽히 대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함. · 국내외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 조성을 위해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학기

정치·행정	미래	<p>술원 연합캠퍼스를 도내에 유치하고,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주과학기술원을 신규 설립하겠다고 공약함. 특히 해외 우수 인재와 석학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연구비, 생활비, 주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글로벌 인재들이 몰려드는 제주만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구축함.</p> <p>- 문성유 후보의 신 5대 산업 대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기존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제주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제주 ABCDE 산업혁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움. 이는 해양(Aqua), 바이오(Bio), 콘텐츠(Contents), 디지털(Digital), 에너지(Energy) 중심의 신 5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낡은 산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탈바꿈시키고 흔들림 없는 튼튼한 지역 경제 자립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야심 찬 경제 비전임. · 신 5대 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혁신 기업 유치와 자본 투자를 총괄 전담하는 '제주 투자청'을 신설하고, 카카오그룹과 같은 대규모 핵심 기업 10여 개와 지역 기반 혁신 기업 200여 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함. 이러한 대대적인 산업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제주 도민 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흥과 풍요로움을 안겨주겠다는 장기적인 정책 청사진을 확고히 제시함. <p>- 서귀포 농수산업의 미래 생존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잦은 기후 위기와 재해로 벼랑 끝에 몰린 1차 산업 종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실질적인 농업 생존 대책을 발표함. 기존 제주 지역 감귤 농가 등에 불리하게 적용되던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육지부 수준으로 전면 확대하고, 농지법 내에 실제 경작자를 보호하는 임차농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억울하게 생존권을 위협받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굳건한 농가 안전망을 구축함. · 감귤연구센터로 축소 및 격하되며 연구 기능이 대폭 약화된 서귀포 지역 1차 산업 관련 연구기관들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삭감된 관련 예산과 연구 인력을 즉각 원상 복구하겠다고 약속함. 이와 더불어 제주도 내에 흩어져 있는 농업 관련 연구소들을 하나로 융합하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는 '제주 미래농업 R&D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신제품 개발 및 병해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서귀포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높임.
	청년	<p>-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정주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제주 지역 청년 인구의 타 시도 유출 현상을 막기 위해 각 후보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함. 이를 위해 미래 첨단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항공특성화대학을 설립하고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를 유치하여 교육 인프라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양질의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생적 환경을 조성함. · 일자리 부족 문제와 더불어 청년들의 독립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행복주택 공

정치·행정	청년	<p>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맞춤형 주거 정책이 쏟아짐. 또한 청년들이 직접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 영농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농업 임대 및 분양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희망을 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함.</p> <p>- 청년 삶을 바꾸는 실질적 민생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정근호 후보는 기존의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일상적인 경제적 고통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생활 밀착형 민생 정책을 전면내 내세움. 도내 모든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임금 성격의 청년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대중교통의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교통비 0원 시대'를 실현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력하게 지원함. · 나날이 치솟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내몰리는 무주택 청년 및 서민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와 표준임대로 제도를 과감히 도입함. 이를 통해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주거 비용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부동산 문제로 시름하는 청년 세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이들이 최소한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받으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함. <p>- 청년 창업 및 문화 거점 공간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후보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실질적인 교류가 단절되어 있던 제주대학교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도보 전용 도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단지 내에 청년들이 유희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함. 이를 통해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과 첨단 기업들이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식 기반의 청년 일자리 창출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해당 지역을 제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스타트업 1번지이자 청년 창업 생태계로 성장시킴. ·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상권 쇠퇴로 인해 갈수록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부흥을 위해, 넓은 골목상권과 유희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크리에이터 워크스테이션 등 대규모 크리에이터 밸리와 청년 문화카페를 새롭게 조성함. 지역 청년 예술가와 예비 창업가들이 모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고 협업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거점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원도심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주도의 자생적인 경제 및 문화 활성화를 도모함.
	책임	<p>- 칭다오 항로 개설 관련 책임 공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논란이 되었던 제주-칭다오 간 화물선 항로 개설 사업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뚜렷한 경제성 검토 없이 적자가 불 보듯 뻔한 해당 항로의 개설을 승인하고 묵인했다며 맹렬히 비판함. 도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책임자로서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은 빈약한 행정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명확한 대도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함. · 이에 대해 김성범 후보 측은 해양수산부가 해당 칭다오 항로의 운항을 법적으로 승인하거나 면허를 인가한 적이 결코 없으며, 경제성 부족 문제 및 손

정치·행정	책임	<p>실 보전에 대한 계약은 철저히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의 독자적인 결정 사안 이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함. 행정 권한의 범위와 책임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한 채 중앙부처 차관에게 모든 절차상 책임을 무리하게 뒤집어씌우려 는 상대 후보의 주장은 전형적인 억지 비방이자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 하다고 일축함.</p> <p>- 해양치유센터 무산 위기 책임 공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대규모로 추진되던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최근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 성과 평가에서 차별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 실상 폐지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지역 정치권 내에서 대형 국책 사업의 좌초 위기에 대한 치열한 책임 전가 논란이 점화됨. 국민의힘 측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독점하다시피 이끌어온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위성곤 국회의원의 안일한 대처와 무능한 정치적 역량 부족이 낳은 참사라며 강도 높게 질타함. · 반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국비 사업이 성과 평가의 도마 위 에 오르고 폐지 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성산읍 지역구를 담당하 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현기종 현역 도의원이 도정 및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지 못하고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역공을 펼침. 본인의 무능한 의정 활동 책임을 덮기 위해 알팍한 정치적 술수로 상대 당을 맹비난하며 도 민의 눈을 속이려는 억지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 다고 촉구함. <p>- 공약 말 바꾸기 및 입법 책임 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위성곤 후보가 무려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3선 국회의원으로 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법안 성과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날카 롭게 지적함. 그럼에도 국회의원 누구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단순 공동발의 실적을 대거 포함시켜 마치 본인이 4·3 입법의 핵심 주역인 양 실적을 부풀 리고 포장함으로써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함. · 또한 제2공항 건설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적극 추진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다가오자 표 를 의식하여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을 미루는 등 무책임한 말 바꾸기를 일 삼으며 지역 내 갈등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함. 뿐만 아니라 수십조 원 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미래 공약들을 각종 토론회에서 쏟아내고 도 정작 법적 책임이 따르는 선거 공보물에서는 슬그머니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하여 도민을 기만함.
	도의원	<p>- 지역 맞춤형 생활밀착 공약 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지역구 도의원 후보들은 추상적인 거대 정치 담론 을 배제하고 주차난 해소,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 개선, 어르신 돌봄 및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 형 공약들을 대거 발표함.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 영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부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구성에 이르기까지 각 동

정치·행정	도의원	<p>네의 특성과 가장 시급한 현안을 꼼꼼하게 짚어내는 지역 맞춤형 정책 대결에 총력을 기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기존의 요란한 대형 유세차량과 확산기 중심의 선거 운동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전거나 친환경 소형 랩핑 차량을 이용하거나 직접 도보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주민과 1대1로 소통하는 조용한 밀착형 유세 방식이 새롭게 각광받음. 특히 지역 공원 등에서 주민들이 직접 동네의 현안 의제를 발굴하고 모의 예산을 편성해 보는 체험형 '주민 광장'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곧장 도정 정책으로 이어지는 풀뿌리 참여 정치를 실천함. <p>- 비례대표 이중당적 논란 자격 유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 등록 마감 직후 복수 정당 가입 사실이 적발되어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격적인 등록 무효 위기에 처했던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4명에 대하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후보 자격 유효 결정을 내림. 선관위는 과거 넓은 정치권의 관행으로 인해 후보자 본인도 모르게 타 정당의 당원으로 무단 가입된 유령 당원 피해 사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함. · 이중 및 삼중 당적 논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촌극을 겪은 각 정당들은 이번 선관위의 합리적인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향후 허술한 당원 가입 및 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베풀려는 심정으로 책임 있게 이어나가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함. 특히 과거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던 잘못된 당원 모집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획기적인 당내 자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전 검증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함. <p>- 소수 정당 도의회 진출과 도정 견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당, 조국혁신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제주 지역의 군소 야당 대표 및 비례대표 후보들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거대 양당이 밀실 야합을 통해 독식해 온 넓고 고인 제주 정치권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 거대 정당의 오만과 독선을 막고 무너진 지역 정치의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한 소수 진보 정당의 도의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함. · 지역의 중대한 현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서민과 노동자,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내에 굳건한 견제 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도정은 민주개혁 세력이 책임지더라도 의회만큼은 철저한 비판과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춘 소수 정당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호소함. 유권자들을 향해 정당 기호에 맹목적으로 투표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역량을 검증받은 유능한 진보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표심을 모아달라고 간곡히 당부함.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항공(좌석), 수출, 관광객, 생산, 인구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p>경제·관광</p>	<p>항공 (좌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기점 국내선 심각한 좌석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주 노선의 핵심 운항 슬롯이 저비용항공사(LCC) 위주로 전면 재분배됨에 따라, 기존 대형항공사(FSC)의 대형기 운항이 급감하고 소형기 중심의 운영 체제로 급격하게 전환되어 전체적인 공급 좌석 수가 예년과 비교해 심각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함. · 이러한 항공기 소형화 현상으로 인해 올해 하계 스케줄 기준 전체 운항 편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탑승 가능 공급 좌석 수가 크게 급감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이 기본적인 이동을 위한 항공권 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불편이 가중됨. - 관광업계, 항공 좌석난 해소 서명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관광협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항공 좌석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의 항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대도민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항공 수송력 회복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함. · 온·오프라인 채널로 동시 추진되는 이번 서명문에는 항공 운항 편수의 조속한 회복 및 확대, 항공기 대형화 투입을 통한 실질적 좌석 공급 확대, 성수기 등 수요 집중 시기 운항 슬롯 운영의 탄력적 적용, 제주 항공 접근성 개선을 위한
--------------	--------------------	---

경제·관광	항공 (좌석)	<p>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의 핵심 요구사항이 상세하게 포함됨.</p> <p>- 좌석 부족으로 인한 경제 위축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심한 항공 좌석난과 더불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폭등 상황이 맞물리면서 관광산업은 물론 제주 지역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역 상공인들의 깊은 우려가 커지고 있어 중대형 항공기 긴급 투입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함. · 항공권 품귀 현상으로 비행기 표를 구하기 어려워진 제주 도민들은 내륙으로의 병원 진료, 필수적인 생업 유지, 가족 방문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실질적인 항공 수송력 회복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수출	<p>- 4월 제주 수출액 사상 첫 1억 달러 돌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의 월간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72.8%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1억1209만 달러를 달성, 단 한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총수출액 실적의 약 33%에 해당하는 엄청난 성과를 단기간에 기록함. ·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압도적인 수출증가율 1위의 우수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입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무역수지 역시 약 4821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여 고물가 등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로 작용함. <p>- 반도체 및 항공기 부품 수출 증가 주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집적회로반도체는 홍콩을 비롯하여 대만,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으로의 수출 호조세에 크게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913.5% 급증한 약 8187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제주의 전체적인 수출 폭풍 성장을 가장 선두에서 강력하게 이끌었음. · 반도체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기 부품 수출 분야도 네덜란드와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1.5% 증가한 약 1830만 달러의 놀라운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지난달에 이어 제주 지역의 핵심 수출 2위 품목의 굳건한 자리를 성공적으로 유지함. <p>-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수출 동반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제주의 1차 산업인 농수산물 수출은 채소류의 미주 및 캐나다 시장 수출 물량 증가와 식물성액즙의 브라질 수출 확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35.9% 증가한 594만 달러를 기록하며 농산물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우수한 성과를 뚜렷하게 거둠. · 수산물 부문 역시 지역 특산물인 넙치 및 기타 수산가공품의 지속적인 수출 호조로 16.0%의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음료와 의약품 등 다른 주요 수출 품목들도 안정적인 동반 성장을 이루어 제주 지역 수출 기반의 성공적인 다변화와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줌.
	관광객	<p>- 부처님오신날 연휴 17만명 이상 입도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5월 부처님오신날 연휴 나흘 동안 항공과 선박을 이용하여 전년 동연휴 대비 5.8%가량 뚜렷하게 증가한 총 17만3000명의 대규모 관광객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할 것으로 제주관광협회에서 예상하며 지역 관광 시장 활성화

경제·관광	관광객	<p>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형성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주말과 대체공휴일로 이어지는 특수를 맞아 연휴 세부 일자별로는 토요일인 23일에 약 4만8000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단기간에 대거 입도할 것으로 세부 분석되며, 이에 따라 국내선 여객 수요가 주말에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뚜렷한 쏠림 양상을 나타냄. <p>- 국제선 및 크루즈 확대로 해외 관광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국제선 항공편 운항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총 132편이 활발하게 운항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제선 탑승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이 무려 29.1% 대폭 증가한 3만2300명에 이를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분석됨. · 하늘길인 항공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통해서도 탑승객 1만500명 규모를 실은 총 5편의 대형 국제 크루즈 선박이 제주 항만에 연이어 입항할 예정이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와 함께 글로벌 해양 관광지로서 제주의 뚜렷한 회복세와 높은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함. <p>- 친환경 관광프로그램 그린로드 확산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이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직접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형 친환경 관광프로그램인 '그린로드' 참여 여행사를 개방형으로 폭넓게 모집하며, 요건 충족 선정 시 유치 관광객 1인당 2만 원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업계에 적극 지원함. · 지원 대상 관광 상품에는 지역 내 플로깅 활동이나 업사이클링 체험 등 자원순환 연계 활동이 필수 요건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2박 3일 이상 머무는 체류형 관광객에게 더욱 의미 있는 체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관광 생태계를 도내에 견고히 구축함.
	생산	<p>-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 농가 보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원에서 집중 육성한 신품종 맥주보리인 '새호품'은 기존 재배 품종보다 고질적인 병충해에 매우 강하고 전체 수확량이 20% 이상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품질 도달도 우수하여 향후 제주 농가를 중심으로 한 고품질 맥주보리 생산에 지대하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실제 현장 실증 재배 결과 맥주 제조에 필수적인 추출률이 기준치를 상회하여 상품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었으며, 이에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재배 면적을 100ha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농작물의 안정적인 지역 생산 체계를 확고히 구축할 방침임. <p>- 감귤 저탄소 생산혁신 지원 사업 참여 저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감귤 과원의 격년결실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여 고품질의 귤을 생산하고 농가의 필수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된 '저탄소 생산혁신농가 지원 사업'이 ha당 2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게 책정된 보조금 단가 문제로 인해 현장 농가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함. · 그 결과 올해 해당 사업의 목표 할당량인 50ha 면적에 크게 못 미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내어 현재 추가 접수를 거듭 진행 중이며,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지원 한도를 ha당 200만 원 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대폭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임.

	<p>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한우, 고급육 생산 전국 1위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한우 거세우의 1등급 이상 최고급육 출현율이 무려 94.3%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최근 3년 연속으로 프리미엄 고급육 생산 부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객관적인 수치로 당당하게 입증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둠. · 이러한 훌륭한 양축 성과는 비육우 생산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 우량 유전체 분석 지원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품질 고급화 정책이 거둔 결실이며, 향후 우량 종축 사육부터 생산 및 유통 과정까지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현장 중심에 맞게 더욱 세밀하게 고도화할 계획임.
<p>경제·관광</p>	<p>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제주 청년층 인구 역대 최대 순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지방통계청 발표 자료 심층 분석 결과 지난해 제주로 전입한 인구보다 타 지역으로의 전출 인구가 더 많아 총 4273명이 순유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7.1%나 급증한 규모로 제주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이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매우 뚜렷하게 확인됨. · 연령대별 순유출 인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20대의 순유출이 2198명으로 전체 유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연속 경신했고, 10대가 그 뒤를 잇는 등 청년층의 심각한 탈제주 현상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급부상함. - 인구 탈제주 핵심 원인은 직업과 주택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를 완전히 떠나 수도권 등 다른 시·도로 이동한 전출자들의 주요 이동 사유를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한 결과 양질의 일자리 등 직업 문제가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가족 결합 문제와 교육 환경, 치솟는 주택 인프라 문제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분석됨. · 청년층을 중심으로 더 나은 조건의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찾기 위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쏠림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파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핵심 도정 현안으로 대두됨. - 1분기 출생아 증가에도 여전히 인구 자연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1분기 기준 제주지역 전체 출생아 수는 9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확실하게 증가했고 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 역시 1.0명을 기록하여, 지난 5년 만에 극적으로 1명대를 다시 회복하는 등 국가적 저출생 기조 속에서도 긍정적인 출산 반등 지표를 희망적으로 나타냄. · 그러나 이러한 출생아 수의 긍정적인 증가 반등세가 선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분기 전체 사망자 수가 1221명을 기록하여 출생 인구를 300명 가까이 크게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며 전체적인 자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심각한 인구 구조적 한계점을 뚜렷하게 보임.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교사, 습지, 도로, 대응, 예상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 현승준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 학부모 민원과 과중한 학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안타깝게 순직한 고 현승준 중학교 교사의 1주기를 맞이하여, 유가족을 비롯해 다수의 제주 지역 교원단체 및 시민들이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대규모 추모 문화제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제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위원회 구성 및 가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함. · 제주도교육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민원 대응 시스템과 허위 경위서 작성 등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비롯한 미흡한 사후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는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 대책 마련 및 순직 교사 유족에 대한 경찰·소방관 수준의 합당한 예우와 체계적인 법률적, 행정적 지원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도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촉구함. - 도내 초등교사 폭행 피해와 교권 추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제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약 20여 분간
-------	----	---

지역·사회	교사	<p>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고 현재 병원 치료와 정신과 심리 상담을 병행해서 받아야 하는 충격적인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교사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어 지역 사회와 교육계 전체에 큰 파장과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총 및 제주교총 등 주요 교원 단체들은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교실 내 교사의 안전과 인권이 여전히 담보되지 않고 철저히 방치되어 있는 열악한 교육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교사 폭행 등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추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의무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법적, 제도적 보호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함. <p>- 교육감 후보들의 교권 보호 핵심 공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교육감 주요 후보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심각하게 추락하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온전히 존중받으며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교권 보호 대책과 교실 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 등 핵심적인 교육 정책 공약들을 잇달아 발표하며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함. · 김광수 후보는 교실 내 유해 공기질을 완벽하게 개선하는 첨단 스마트 정밀 측정 센서 도입 및 도내 전 학교 전면 설치를 약속하며 학생들의 신체적 안전을 강조했고, 고의숙 후보는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 강화와 더불어 제주 4·3 평화 인권 교육을 학생들의 정규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등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 교육 혁신 철학과 지역 돌봄 공공성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부각함.
	습지	<p>- 제주 습지 보전 예산 전무 및 단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이 제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 청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제주도정의 실질적인 습지 생태계 보전 관련 본예산이 0원으로 완전히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는 생태계 보전과 회복을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심각한 방치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도정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환경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 현재 도내에 편성되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관련 예산조차도 습지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한 심층적인 생태 건강성 조사나 연구 명목이 아닌, 단순 시설물 보수나 풀베기 등 일회성 유지관리 성격의 외형적 정비 사업과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비 등에만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생태계 보전 정책의 부재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지역 환경 단체들이 강력히 지적함. <p>- 습지실천계획 불이행 및 편의주의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앞서 야심 차게 수립해 놓은 5개년 습지보전실천계획 명세서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과 민간 참여형 습지 조사 선진화 등 필수 핵심 과업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 예산 편

지역·사회	습지	<p>성 현장에서는 계획된 본연의 생태 보전 사업 내용이 온데간데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고 환경 단체들이 도정의 관련 조례 의무 방기와 무능함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올해로 만료 시기가 도래하는 현행 5개년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차기 후속 계획 수립 절차를 중앙 환경부의 기본계획 수립 일정에 억지로 맞춘다는 핑계로 2027년으로 늦춰 미루는 것은, 향후 1년 이상 막대한 환경 정책 공백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극히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라고 매섭게 꼬집으며,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즉각적인 자체 보전 계획 수립과 시정을 도정에 강력히 촉구함. <p>- 내륙 및 연안 통합 습지 관리 체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지역 난개발과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직접적인 여파로 인해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제주의 소중한 습지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사라지고 훼손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내륙 습지뿐만 아니라 현재 체계적인 생태 관리의 사각지대에 철저히 방치된 바다 연안 습지 영역까지 모두 포괄하여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중장기 습지 관리 로드맵 수립을 제주도정에 강력히 요구함. · 제주도는 예산 부족 타령을 당장 멈추고 단순히 외형적인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정비하는 얕은 수준에서 벗어나, 제주의 오랜 생태적, 문화적 요충지이자 생물다양성의 핵심 자산인 습지의 본래 생태 가치를 철저히 조사 및 기록화하고, 이러한 귀중한 데이터를 지역 사회 및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환경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정교한 보전 관리 체계 구축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하여 강조함.
	도로	<p>- 번영로 차고지 인근 화물차 상습 불법 주정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도련1동 지역에 위치한 제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근 번영로 본 차도로 진입하는 진출입 포켓차로 위 공간에 거대한 대형 영업용 화물차와 일반 자가용 승용차들이 매일같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면서, 도로 차선을 구분 짓는 플라스틱 시선유도봉 등 각종 필수 안전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주행 차량들의 감속 지연 및 시야 방해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아슬아슬한 실정임. · 공영 차고지 내 정기관 전용 주차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8천원 수준의 저렴한 유료 주차 비용조차 내기를 기피하는 일부 양체 대형차 운전자들로 인해 본 차도를 빠르게 주행하는 일반 운전자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아찔한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해당 번영로 외곽 도로 구역이 불법 주정차 고정 단속 구역으로 공식 지정되지 않아 행정 단속 지도와 제재가 턱없이 제한적인 답답한 상황임. <p>-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가로수 무단 훼손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중부공원 일대에서 대규모로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진입로 연결 구간으로 사용될 천수동로 도로변에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충분한 양해 안내 없이 갑작스럽게 수십 그루의 기존 가로수를 무참히 절단해 뽑아내고 우거진 녹지공간을 중장비로 파헤치는 무리한 도로 확장 공사가 강행되어 인근 지역 시민들의 거

		<p>센 반발과 민원 불만이 폭주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십 년간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 환경을 제공하며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하던 울창한 도시숲 인근 삼거리 교통섬 도로가 하루아침에 삭막하고 흉물스러운 공사판으로 변질되었으며, 시민들의 빗발치는 항의로 자연 훼손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공사 업체 측은 기존 구역에 잔디를 심어 새로운 녹지 공간으로 다시 조성하겠다는 매우 형식적인 안내 현수막을 사후약방문 격으로 뒤늦게 땀질식으로 내거는 전형적인 불통 행정의 씩씩한 행태를 보여줌. <p>- 강정마을 진입도로 공사 생태계 무단 파괴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진입도로인 강정천교 교량 확장 재공사 추진 과정에서, 과거 강정천 일대 천연 암벽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던 희귀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솔잎란 군락 자생지가 본 공사 시작 전부터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크게 훼손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역 강정 주민과 여러 환경 단체들이 생명과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는 무리한 도로 공사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중단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촉구하고 나섬. · 사업 시행청인 서귀포시가 최근 8년간 사고가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하천 범람 재해 방지라는 매우 빈약한 명분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해당 도로 확장 교각 공사가, 오히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주상절리 구간과 맑은 강정천 하상 상당 부분을 거대한 인공 콘크리트 구조물로 무참히 덮어버리게 되어 제주의 훌륭한 자연환경과 조류 생물다양성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환경 운동가들이 강하게 경고함.
	<p>도로</p>	<p>- 부처님오신날 연휴 소방당국 특별경계 비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길게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도내 전역 사찰에서 연등 설치 및 촛불 사용이 예년보다 급증하고, 한라산 등 산간 지역 유명 사찰에 도민과 수많은 관광객 방문 인파가 한꺼번에 집중됨에 따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 확산과 각종 시설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제주 소방당국이 선제적으로 최고 수준인 특별경계 근무 1호를 공식 발령함. · 제주 소방당국은 관서장 중심의 초기 현장 지휘 체계를 매우 확고히 확립하고 도내 전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가용 소방 인력 3천 4백여 명과 모든 소방 장비를 100% 최대로 즉각 가동하는 강력한 비상 대응 체제에 본격 돌입하여, 목조 건물인 전통사찰 및 주요 행사장 주변 길목에 소방력을 24시간 밀착 근접 배치하고 수시로 기동 순찰하는 등 선제적인 초기 화재 예방 활동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확보에 모든 행정력과 총력을 기울임. <p>-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이초 사태와 매우 유사하게 극심한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故 현승준 교사가 안타깝게 순직한 지 어느덧 1주기를 맞이하여, 홀로 고통받는 교사를 철저히 외면하고 방치한 교육 현장의 부실하고 안일한 민원 대응 방어 시스템을 맹렬히 비판하며, 현장 교원들이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강력한 악성 민원 차단 매뉴얼 전면 재정비와 더불어 제주 교육당국의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적극적 사후 대응 및 교육감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유가족들
	<p>대응</p>	

	대응	<p>이 강력히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주요 현장 교원 단체들은 일선 교사가 심리적, 신체적 중대한 위험 신호를 보낼 때 개별 학교의 관리자와 관할 교육청이 즉각 개입하여 개인을 대신해 함께 책임지고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의 두터운 보호 구조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역설하며, 나아가 악성 민원 학부모 대상의 기관 차원 맞고소제 의무화 법제화, 중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무관용 엄중 대처 등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단호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책 실행을 정부에 재차 강조함. <p>- 학생 대상 강력범죄 예방 자치경찰 야간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도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초등학교 유괴 동행 의심 사례 및 귀가하던 여중생 주차장 납치 폭행 미수 사건 등 하룻길 연약한 미성년자 대상의 문지마 강력범죄에 대한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최고조로 커짐에 따라, 제주 자치경찰단은 시내 주요 학원 밀집 구역과 초등학교 주변의 다소 후미진 통학로 일대에 제복 입은 경찰관 인력을 야간 귀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대대적인 특별 방법 활동 및 가시적 도보 순찰 대응에 선제적으로 돌입함. · 제주 자치경찰은 제주경찰청 범죄 예방 부서와 긴밀히 상호 공조하여 도심 내 흥기 소지 등 치명적인 이상 동기 범죄 관련 112 긴급 신고 접수 시 골든타임 내에 즉각 합동 출동하여 범인을 조기 제압하는 유기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지역 교육청과도 적극 협력하여 통학로 야간 방범용 CCTV 정상 작동 여부 및 비상벨 등 필수 안전 시설물의 가로등 조도를 일제히 점검하여 밤거리 범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는 촘촘한 다중 사회 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함.
	예상	<p>- 제주 지역 집중호우 및 강풍 동반 악천후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남부 먼바다 해상에서 제주 내륙 방향으로 빠르게 동진하며 세력이 강하게 발달하는 저기압 비구름대의 직접적인 타격 영향으로 주말 연휴 동안 제주 전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이 공식 예보하였으며, 특히 한라산의 지형적 상승 효과가 크게 더해지는 산지와 남부 중산간 지역에는 단시간에 최대 300mm가 넘는 물폭탄 수준의 기록적인 극한 국지성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깊이 우려되어 토사 유출 등 큰 빗길 피해가 예상됨. · 설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와 함께 해안가와 육상 전역에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대형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거센 태풍급 돌풍이 불고 앞바다 해상에 최고 3.5m 이상의 높은 풍랑 물결이 거칠게 일 것으로 전망되어, 하천 급류 범람 및 저지대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및 농업 시설물 사전 점검 관리와 산간 계곡 야영 등 야외 활동 전면 자제, 소형 어선 피항 결박 등 해상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예상됨. <p>- 전기차 보조금 신청 조기 급증 및 예산 소진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올해 상반기 승용 및 소형 화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구매 보조금 도민 신청 건수가 당초 도청

	예상	<p>의 예측 수요를 아득히 뛰어넘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배나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면서, 도의회에서 확보된 상반기 도비 배정분 예산의 조기 고갈 및 완전 소진이 코앞으로 임박하여 부득이하게 이달 말 신규 구매 접수 조기 마감의 선언될 것으로 행정 당국에 의해 확실히 결정 및 예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처럼 전국적인 친환경 보조금 부족 현상과 맞물린 도내 승용 및 화물 전기차 구매 대기 수요의 폭발적인 급증 트렌드에 기민하게 발맞춰, 제주도 미래 혁신 담당 부서는 이달 접수 마감 이후 도래하는 하반기 도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부족한 필요 국비와 지방비 재원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차종별 대기 수요 현황 물량을 꼼꼼하게 다시 반영하여 잠시 중단되었던 원활한 친환경 차량 민간 보급 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정상 재개를 매우 긍정적으로 예상함. <p>- 제6호 태풍 장미 복상 및 간접 영향권 편입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먼 남쪽 적도 부근 팔라우 동북동쪽 해상 구역에서 처음으로 소용돌이 모습을 드러내며 공식 발생한 울여름 제6호 태풍 '장미'가 해수면의 뜨거운 열기를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그 세력을 점차 위협적으로 키워 서북서진 방향으로 이동하여, 다가오는 주말쯤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바다 해상까지 매우 빠르게 북상 진출할 것으로 기상청 모델에 의해 뚜렷하게 예상됨에 따라 제주를 비롯한 남부 지방 및 한반도 주변 기상 변화에 전 국민적 큰 불안과 언론의 관심이 일제히 쏠리고 있음. · 아직 태풍 발달의 극히 초기 형성 단계라 주변 거대 기압계 배치에 따른 향후 최종 이동 진로 경로의 변동성과 유동성이 매우 큰 불확실한 기상 상황이지만, 북상 과정에서 따뜻한 수증기 바다를 지나며 태풍의 중심기압이 크게 낮아지고 최대풍속이 맹렬하게 거세지며 강도 분류상 최소 '중' 이상의 파괴적인 중형급 세력을 갖출 것으로 분석 전망되어, 향후 기압골 수축에 따라 제주와 남해안 해안가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국지성 폭우와 강풍 등 치명적인 기상 악화 피해 영향이 크게 우려되고 예상됨.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